

## 마르크스는 어떻게 마귀로 되었는가? (런재 4)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충실한 사탄교의 신도들이다.



아르헨티나 공산주의혁명수령체 게바라는 이렇게 썼다. 《증오는 투쟁의 인소이다. 동정이 조금도 없는 미움은 한 혁명자를, 인류의 자연극

한을 초월하여 그로 하여금 높은 효과와 훼손성이 있는 랭혹하고 로련한 살륙기계로 변하게 할수 있다. 이러한 증오로 적들을 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인류에게 한 짓이고 그것과 함께 한 것은 악명이 자자한 인류의 수령들이다. 히틀러, 애치맨, 멩겔레, 스탈린, 모택동, 안드라파브, 폴포드 등등 인류수령들은 우리들에게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공산당원들에게 마귀부체가 붙었는가? 그들은 사탄의 공구로 되어 마귀를 쫓았던 신성한 신도와 선량한 수련자들에게 보복했는가? 그 답안은 긍정적이다. 공산당은 사람의 생명을 초개로

여긴다. 에스빠냐내전시기에 공산당은 천주교목사 4 천명을 살해했다. 저명한 러시아 6 명 공산당원들이 니콜라스•찰자이는 신부집에 뛰어들어 그의 머리카락을 뽑고 눈알을 파냈으며 칼로 몸을 마구 찌고 큰 쇠덩이로 그의 몸을 갈아놓았으며 총 두방 쏘 죽였다. 이 일은 목사에 대한 죄일 뿐만아니라 성인에 대한 조롱이다.

공산당에 대해 말한다면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가족까지 시달림을 받게 하며 부자지간에 서로 싸우게 하는것을 당연한 일로 삼으며 혁명을 선동하고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적”을 도살했으며 폭력으로 인하여 그들의 친구와 혁명수령들도 불행한 운명을 면치 못했다. 이것이 바로 사탄교의 표기이다. 즉 그의 혁명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닥치는대로 죽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가 말한 “영원한 혁명”이다.

공산주의는 일반적인 비도덕적의 인류리념이 아니라 그의 교의는 철저한 마귀교이다. 마르크스는 우선 악마의 에너지로 감격된 숭배자들을 유혹시켜 따스한 물로 개구리를 삼는 방식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것이다. 그 수단은 고의적으로 공산신도들로 하여금 끊임 없이 투쟁을 선동하여 인류에게 특히 하늘을 존경하고 신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에 대해 죄를 짓게 했다. (다음호에 계속)

## 백악관앞에서 중공을 해체하고 박해를 결속하라고 호소



중공괴수 호금도가 지난 1 월 18 일부터 20 일 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을 방문했다. 19 일 점심, 파룬궁학원들은 백악관앞 펜실베니아 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중공을 해체하고 박해를 결속하라고 호소했다.

전세계퇴당봉사센터 발기인 리대용박사는 집회에서 《중국민중들은 재빨리 각성하고 사당에서 리탈하여 자신과 집식구들을 위해 광명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저명한 중국민주인사 위경생은 집회에서 《전세계는 중국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알고 있다. 중공독재정권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사람을 위협할뿐만아니라 전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각성한 중공관원들이 공개퇴당성명을 발표

## 중공시드니주재 외교관 진용림 공개퇴당



2005 년 5 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주재 중공외교관 진용림(陈用林)은 (옆사진) 공개퇴당하여 국제사회를

진감했다.

진용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룬궁학원들은 중국에서 대규모의 박해를 받고 있다. 지난 날 임직한 4 년동안 사악의 방식으로 중공을 위해 사악한 나는 죄악감을 느끼며 빈번히 악몽에 빠져있었지만 지금 중공에서 리탈하고 악몽에서 깨어났다.》

## 북경사범대학교수 손연군 공개퇴당



2009 년 3 월, 길림대학 철학박사이며 북경사범대학 심리학계 저명한 교수인 손연군(孙延军)은 (옆사진)

미국에서 공개퇴당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결작인 '9 평공산당'은 나로 하여금 중공의 죄악본질을 전면적으로 심각하게 리해하게 했으며 내가 중공에서 퇴출함은 난생 가장 명지한 선택이다.》

## 심양시사법국 국장 한광생 공개퇴당



료녕성심양시사법국 국장 한광생(韩广生)은 99 년에 중공이 파룬궁학원들을 마구 체포하기 시작할 때 파룬궁학원들은

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중국공산당을 리탈한것은 내가 중국을 배반한것이 아니고 더욱이 중화민족을 배반한것이 아니다. 나는 조국을 몹시 열애하고 나의 인민을 몹시 열애한다. 나의 동사자들이 량지를 지켜 중공의 순자품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 《인민일보》 기자 구명위 공개퇴당



《인민일보》, 《인민론단》의 부주임 구명위(邱明伟)는(옆사진) 2009 년 8 월 23 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공은 거짓말과 폭력으로 파룬궁학원들을 망라한 의기인사들을 박해하고 있다. 나는 지금 공산당과 일체 관계를 단절할것을 공개선포한다.》

## 심양시위 선전부장 장개천 공개퇴당



2010 년 1 월 1 일, 중공심양시위 선전부련락부장 장개천(张凯臣)은(옆사진) 뉴욕 플러싱 뉴스발표회의에서 공개퇴

당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중공의 일당독재는 중화의 과거, 오늘, 장래의 만악의 근원이다. 파룬궁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사람의 도덕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 부산에서 호평을 받은 신문공연

지난 1 월 19 일, 20 일, 미국신문예술단은 한국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하여 관중들의 호평을 받았다.



류정순교수



최우원교수

한국 복장장식문화원 원장이며 경성대학교수인 류정순은 《이번 공연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부산대학철학계 교수 최우원은 《신문공연수준은 비길데 없으며 몇천년의 동방문화실정을 바탕으로 하여 승화한 것으로서 진리, 아름다움, 신성 세가지를 한데 융합한 지고무상의 경지는 우리의 생존과 생활에 지도적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